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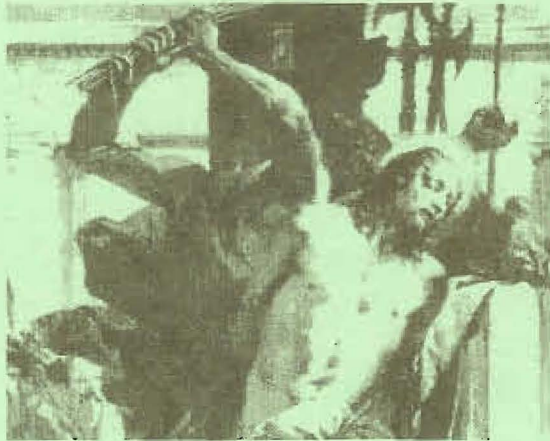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3주일·평신도주일(위령 성월)
제30권 51호(다해) 2010.11.14

[묵상]



채찍질 당하는 그리스도
〈티에폴로, 1737년경, 성알비스 성당, 베네치아〉

그 때가 언제일까 무척 궁금하다.
어떤 표정으로 그 때를 알아볼 수 있을까?
조급해하면 그 분을 혼돈할 수도
그 시기를 착각할 수도 있다.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하느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움과 박해를 받고,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증언할 기회를 갖는 것.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하느님이 주신 언변과 지혜는
증언할 기회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그 언변과 지혜는
내가 하느님을 증언할 때만 나의 것.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느님을 증언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참 생명을 주는 지혜.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평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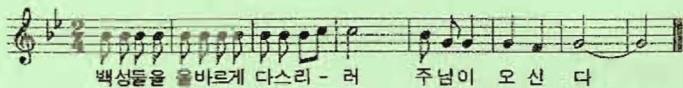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화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박덕기 카타리나, 엄은섭 도로테오 (생)이덕철 루카 & 이순자 비비안나 가정, 정해홍 요셉, 김현숙 세실리아, 성영림 엘리사벳, 성호재 시몬, 성유진 로렌스,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김동돌 요셉,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장현숙 발바라, 홍주희 안나, 이은완 야고보, 서인수 요셉, 고준희 제임스, 박준구 요한, 안준환 미카엘 & 조상님들, 이복, 최부금 로사, 최병기 요셉 & 정효임 안나, 신현보 하상바오로, 안춘자 (생)이덕철 루카 & 이순자 비비안나, 오진 베드로, 최기남 야고보, 김효임 골롬바 & 김효준 아오스당, 최응철 바오로 & 김채선 막달레나, 김형순 다니엘,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말라키 예언서(Malachi) 3,19-20

화답송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 분이 오신다.○
○그 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2 Thessalonians) 3,7-1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으니,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복 음 루카(Luke) 21,5-19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8	178
봉헌	222	222
성체	186	186
파견	218	218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가증할 죄악인 낙태

요한 23세기서는 인간 생명은 "그 시작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성한 것이라고 제천명하셨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낙태를 단호하게 단죄했다.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다."

교회의 교회법 규범은 초세기부터 낙태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왔다. 이러한 관습은 역사상 다양한 시기에, 다소 엄하거나 덜 엄한 처벌을 부과하면서 확인되어 왔다. 1917년의 교회법전은 낙태를 파문의 벌로 다스렸다. 개정된 교회법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파문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도움 없이는 낙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공범자들도 파문에 포함된다. 이러한 반복되는 제재를 통해서 교회는 낙태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지체없이 회개의 길을 찾도록 고무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파문의 처벌이 지니고 있는 목적은, 개인이 어떤 죄가 지닌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교회의 일관된 교리적, 법적 전통 속에서, 바오로 6세기서는 이러한 전통이 변함없는 것이고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실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직접적인 낙태, 즉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항상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주교들은 비록 전세계에 퍼져있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낙태를 단죄해 왔고, 전술한 바 있는 자문을 통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표해 주었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회 전통은 이 교리를 전달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은 이 교리를 가르친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법도, 그 무엇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이성 자체로 알 수 있으며, 교회에 의해 선포된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63). 낙태의 윤리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인간 배자(胚子)에 대해 행해지는 최근의 조작 형태들에 대해서도 역시 적용된다. 이러한 조작들은 비록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배자에 대한 살해를 수반한다. 이 배자 살해는 배자 실험에서 발생하며, 배자 실험은 몇몇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계속)

세상의 혼, 하느님의 표지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려 한다.”(임당송). 교황 바오로 6세는 “발전은 평화의 새 이름”(민족들의 발전, 76-80항)이라고 선언하면서, 발전을 ‘비인간적인 삶의 여건을 더욱 인간적인 것으로 이행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지식인과 대중매체는 때로는 경제위기에 관해, 때로는 경제성장에 관해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말할 때에는 ‘비인간적인 삶의 여건’을 살살이 밝히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키지만, 성장과 발전을 노래할 때에는 ‘비인간적인 삶의 여건이 더욱 얼마나 인간적인 것으로 이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위기 때에는 허리를 졸라매자고 재촉하고, 성장을 노래할 때에는 분배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가르치기 일쑤입니다. 혹시 모든 이가 아니라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유익한 발전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사실 ‘양극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빈곤화 곧 ‘비인간적인 삶의 여건’에 놓여 있거나 놓일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사람들 사이의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이 상호불신과 증오, 분쟁과 환란을 일으키며, 인간 자신이 바로 그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된다고 밝힙니다.(사목헌장 8항 참조).

혹시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1독서)이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아름다운 들과 자원 예물로 성전을 꾸미고”(복음) 그 화려함에 넋을 잃도록 세상을 상대로 작업(?)을 건 것은 아닐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는 건물들은 위용을 뽐내고

곳곳에 세워진 성전은 화려함을 과시하는데, 그 안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초라해지니 말입니다. 게다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들여라.”(2독서)고 훈계하면서 이미 고되게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숨 쉴 틈마저 빼앗고, 불균형과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전쟁과 반란,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웃의 불행이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이 꾸민 ‘인재’가 아니라, ‘천재’, ‘저개발’ 혹은 ‘운명’ 탓이라고 믿게 만들어 아예 발전(평화)의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지요?

한국 교회는 오늘을 평신도 주일로 기념합니다. 공의회는 “평신도는 저마다 세속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얻는 바로 그 정신을 세상에 전파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교회헌장 38항) 고 가르칩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으니,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아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서울 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진향 아네스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 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11월 위령 성월

위령 성월은 자비와 자선활동과 더불어 기도와 속죄로 '목은 인간'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있고자 힘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모든 행동과 네 모든 생각에서 네가 오늘 죽게 될 것처럼 너는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준주성범'은 가르칩니다.

◆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시편 67:7)

- 일시: 11월2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롱비치 El Dorado E. Regional Park
- 주례: 로저 마호니 추기경
- 2부행사: 각 성당대항 민속놀이
- 주최: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한경숙 안나(PHN, NP 자격) 자매가 카운티 보건면역당국에 요청해 매년 마련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합니다.

- 일시: 13일 특전미사 후 회의실,
14일 주일 아침 7시30분/11시 미사 후, 친교장
- 대상: 만18세 이상. 계란 알러지가 없고, 감기기운이 없는 분, GBS(심한 마비성 질환) 병력이 없으신 분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Theme)' 공모

2011년 2월6일로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어떤 주제(Theme)를 행사표어로 삼을 것인지 교우 여러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내용을 예를 들면 영적성숙, 감사, 일치, 미래지향 등...을 표현한 것이면 되겠습니다.

- 공모 마감: 11월28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 당선작에는 '깜짝 놀랄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교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구역장·반장 단합모임 영화 '울지마 뜬즈' 단체 감상

- 일시: 오늘 주일(14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LA코리아타운 CGV 영화관(구 우래옥 자리)

◆ 성모회 된장, 고추장, 새우젓 판매

- 일시: 13일 특전미사, 14일 주일미사 후
- 문의: 성모회장 최옥희 데레사 ☎(310)508-2912

◆ 백삼위 성당 여성 피정

- 주제: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이사야 9,16)
- 일시·장소: 11월20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성당
- 대상: 백삼위에 다니는 여성교우
- 준비물: 성경, 묵주, 필기구
- 접수: \$5(점심식사 제공) 사무실 또는 여성제단채장

◆ 새로 개정된 메디케어 & 메디칼 건강플랜 설명회

2011년에 새로 개정되는 Medicare & Medical 건강플랜 설명회. 질의응답을 통해 새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보험전문가)

- 일시·장소: 12월12일(주일)오후 1시, 강당
- 내용: 65세이상 은퇴자, 노약자, 장애인 대상. Part C (MA), Part D(PDP), Medicare Supplement Plans
- 주관: 남가주 한인가톨릭 장애인복지회
- 연락처: 노장오 요셉 회장 ☎(213)387-3301,
조면식 바르톨로메오 총무 ☎(213)479-0066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장소: 12월12일(주일) 오후 3시, 성당
-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관심있는 교우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기 바랍니다.
- 문의: 최기남 야고보 꾸리아 단장 ☎(310)569-3940

◆ 신앙수상집 '하느님의 지혜' 배부

본당교우 송종두 요한 형제(교육심리학 박사)의 신앙수상집 '하느님의 지혜'가 발간되었습니다. 13일 특전, 14일 주일 미후 성당현관에서 무료로 배부하오니 한권씩 받아가십시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14일(주일): 토런스 남 1반(소고기국밥 \$3)
- 11월21일(주일): 토런스 북 1/2반(콩나물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영도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병학 김선제 김옥찬 김 용 김원모 김원호 김유숙 김정희 김주량 남명자 모은기 민기남 민찬기 박광자 박순자 박씨니 박완철 박정희 방정복 배기엽 서성용 석순영 송기철 송재훈 신대철 안민수 양영관 엄영희 오영섭 원건희 유선식 유철희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연행 이은록 장영우 정상봉 정열모 정해홍 차병용 최미열 최이원 최태훈 최희숙 한연만 황학수 한길선례	합계: \$4,530
미사헌금: \$2,936	2차헌금: \$1,021	
성전헌금	금영도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병학 김선제 김 용 김원모 김원호 김유숙 김정희 김주량 남명자 모은기 민기남 민찬기 박광자 박씨니 박완철 박정희 방정복 배기엽 서성용 석순영 신대철 안민수 양영관 오영섭 원건희 유선식 유철희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은록 장영우 정상봉 정열모 정해홍 차병용 최미열 최이원 최태훈 한연만 한길선례	합계: \$3,903
감사헌금: 이태호 이영호 한혜라	리사이클링: \$83	

공지사항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남가주 소식

◆ 故 이태석 신부님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영화상영

아프리카 오지 수단 톤즈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요한 신부님이 남긴 사랑의 감동 드라마.

- 일시 : 11월18일(목)까지 상영
- 장소 : CGV영화관(구 우래옥 자리 621 S. Western, LA)
- 주관 : 아프리카 희망후원회(회장 김호근 야고보 신부)
- * 상영시간 문의 : 아프리카희망후원회 ☎(213)258-8665

◆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연주회

- 일시 : 11월27일(토) 오후 7시
- 장소 : LA 그레고리 한인천주교회(922 S.Bronson Av.)
- 주관 : 미주 평화의 모후 선교회
- 문의 : ☎(323)935-3429

◆ 남가주 울뜨레아 송년의 밤

- 일시 : 12월4일(토) 오후 6시
- 장소 : LA 성 바오로 성당(1920 S. Bronson Av.)
- 주최 : 남가주 향니전주교 푸르실료 사무국
- 문의 : 백삼위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94-0276

◆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 따른 1일 파정

- 일시 : 12월11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5시
- 주제 : 묵상과 관상기도
- 지도 : 정규한 예수회 신부(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저자)
- 장소 : 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 문의 및 신청 : (562)233-7163 최 아우렐리아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8일(토) 오후 6시
- 장소 : Double Tree 호텔(13111 Sycamore Dr. Norwalk)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 대표부부 ☎(310) 347-1665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별혜경 올라아나 920-5153	배태임 안나 781-9199 11/12(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킵 530-7702	김정웅 요한 530-7702 11/12(금)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1/12(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320-369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교복 레오 328-1817 11/12(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인두 토마스 (424)241-5988 11/19(금) 오후 7시30분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선 크리스티나 212-7543 11/8(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803-7798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1/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합동 반모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합동 반모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325-6982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차인수 안드레아 256-6001 11/12(금) 오후 7시
	3	대전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895-8624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금자 데레사 800-3939 11/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귀분 안나 518-1736 11/20(토)
365-9750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84-3289 11/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1/13(토) 오후 6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1/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선제 바오로 541-5840 11/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866-8778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제43회 평신도 주일을 맞아 - 담화문 요약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습니다.

찬미예수님! 전례력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 마흔세 번째 평신도주일을 맞이하며 교우 여러분과 함께 이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 수도자 분들과 더불어 하느님 백성을 이룩해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루카 21,9).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루카 21,18).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주제로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교회가 아시아의 백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라는 교황권고 ‘아시아 교회’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평신도들이 복음화의 일선에서 교회의 목자와 일치해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웃에 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함을 참석자 모두가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20개국 대표와 30여개 교회운동 단체 등 300여명이 함께 한 이번 평신도대회에서 또 한 가지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비해서 인구대비 10.1%의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인구 65억 중 3분의 2가 넘는 40억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가톨릭 신자는 불과 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필리핀을 제외하면 고작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제가 1명뿐이고 총 신자 수가 90여 명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총 신자 수가 3천여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와 얼굴 모습이 비슷한 몽골은 700여 명 신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밖에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도 소수 종교로서 박해받고, 자연 재해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로써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평신도 선교사 파견과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달 전교주일 담화에서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선교사명 의식은 선교 사제와 봉헌생활자, 평신도 선교사들이 교회 친교를 촉진하고자 노력할 때 길러진다”면서 ‘친교의 교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돌아볼 때 18세기말 오직 한분 뿐인 사제를 살리기 위해서 평신도 회장이 대신 불잡혀 죽어간 을모년 주문모 신부 실패사건(失捕事件)과 6년 후 신유박해 때 교우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 중국인 사제가 관가에 자수해서 순교까지 한 사례는 목자와 양떼 사이의 아름다운 친교의 전통을 말해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모두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써 친교의 교회상을 바로 세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과 교황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평신도의 교회생활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교회 내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이미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마르 16,15)할 사명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직입니다.

이제 새 천년이 시작되기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음을 거듭 거듭 일깨워주면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평신도대회 폐막미사 끝에 진행된 선교 파견예식에서 참석자들은 하얀 묵주와 함께 묵에 거는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성도님의 시선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바치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수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매 순간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수난에 합쳐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이웃에 전함으로써 이 땅과 온 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멘.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